현대 인식론의 쟁점과 전망*

김 효 명
서울대 철학과 교수

<목 차>

Ⅰ. 서론
Ⅱ. 인식론의 과제
Ⅲ. 심리주의적 전회
Ⅳ. 콰인과 자연주의
Ⅴ. 합리성과 선험성

Ⅰ. 서론

지식 또는 인식의 문제가 언제부터 인간들의 반성적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였는지 정확히 말하기는 힘들 것이다. 서구에서는 호머(Homer)가 신들과 인간들을 앎을 가질 수 있는 존재로 규정하였을 때 이미 조야한 형태의 인식론이 시작되었다고 보기도 하는 것 같다.[1] 그러나 우리가 현재 이해하고 있는 바대로의 지식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의 시초는 아무래도 "지식이란 무엇인가"라는 명시적인

---

* 이 논문은 1990년도 학술진흥재단 연구지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1) cf. E.Hussey, "The Beginnigs of Epistemology: from Homer to Philolaus", in *Companions to Ancient Thought 1: Epistemology*, ed. by S.Everson, Cambridge Univ. Press, Cambridge, 1990.

형태의 철학적 질문으로 시작된 플라톤(Plato)의 철학에서부터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그것은 '인식론'에 해당하는 서양어 'epistemology'의 어원인 'episteme'에 대한 반성이 집중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던 때가 바로 이때였기 때문이다. 예컨대 우리는 플라톤의 『테아이테토스』(Theaetetus)편에서 episteme에 대한 매우 체계적인 철학적 논의가 전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episteme가 지각도 아니고 단순한 참된 믿음도 아님이 논증된 후 제기되었던 질문은 episteme가 되기 위해선 참된 믿음에다 또 어떤 조건이 추가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그리고 이 문제가 바로 그 이후 지금까지 서양철학에서 행해진 인식론적 논의의 성격과 방향을 결정했던 문제였다.

서양철학에 관한 한 인식론의 역사가 철학의 역사와 거의 그 외연(外延)을 같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미 그 당시부터 철학자란 지식을 어떻게 획득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 여겨졌으며, 지식을 획득한다는 것은 다름아닌 참된 믿음을 거짓된 믿음으로부터 구별해내는 일과 마찬가지 일이였다. 따라서 이 문제는 우리가 가진 믿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근거가 필요하며 또 어떤 종류의 근거가 합당하지 않는지를 가려내는 일과도 밀접히 연관된다. 진리에 대한 갈망 내지는 추구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서양의 철학적 사유의 발전과정에서 하나의 두드러진 특징은 철학자들이 우리가 어떤 특정한 진리를 알 수 있는지 없는지, 또는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질문으로부터 대번에 지식이란 어떻게 가능한지, 우리의 믿음들이 어떻게 정당화되어야 하며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인지 관계가 어떠한지 등등의 매우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인식론적 질문으로 넘어갔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점은 바로 서구학문의 출현과도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문제로

서, 서구에서 인식의 문제가 학문의 본성문제와 그 운명을 같이해온 역사를 지니게 된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학문이란 지식의 체계라는 매우 일반적인 규정을 놓고 볼 때, 이 규정을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우선 무엇이 지식이고 무엇이 체계인지 하는 더 근원적인 물음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인 바, 이러한 물음은 바로 인식론의 물음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인식론은 학문의 정초(定礎) 문제와 근본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와 연관하여 현대의 인식론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의 주된 쟁점은 무엇인지를 논의해 보고, 아울러 앞으로의 전망도 가늠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표이다. 이 글은 먼저 학문의 정초문제와 연관된 현대 인식론의 핵심적 과제를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개괄적으로나마 살펴본 다음, 소위 '심리주의적 전회'(psychological turn)라고 불리우는 최근의 인식론적 경향을 몇몇 대표적인 학자들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 마지막으로 논의의 표적을 좀더 구체적인 데로 잡아 인식론의 두 기본개념인 합리성과 선험성의 문제를 고찰해 보는 순서로 짜여질 것이다.

II. 인식론의 과제

과학을 지식의 체계라고 할 때 그 지식이란 과연 무엇인가? 옛날 희랍시대로부터 시작하여 현대에 이르기까지 서양에서는 이 물음에 대한 수많은 논의와 논쟁이 있어왔다. 이 물음은 고대의 플라톤철학에서도 핵심적인 주제중의 하나였으며, 근세의 경험론과 합리론, 그리고 칸트(I. Kant)의 비판철학의 주요 문제도 이것이었고, 금세기초 논리적 실증주의의 정통과학관에도 기본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한 일정한 입장이 전제되어 있었다.

플라톤의 『테아이테토스』편은 지식의 가능한 모든 정의가 고찰되어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플라톤에 따르자면 지식이란 우선 단순한 믿음과 구별되어야 하며 특히 참된 믿음과도 구별되어야 한다. 그것은 우연히 가지게 된 믿음이 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왜 그 믿음이 참인지에 대하여 적합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비록 그 믿음이 참이라 할지라도 지식이라 간주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플라톤은 적합한 설명이나 근거가 제시된 참된 믿음이 지식이라 규정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견해를 마지막으로 피력하였다. 물론 이 규정이 그가 도달한 지식의 최종적인 정의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후의 서양철학은 이것을 지식에 대한 정통적인 정의로 여기게 되었다. 요즈음의 인식론자들은 용어를 달리하여 이 정의를 정식화하고자 한다. 이 정식화에 등장하는 중요한 현대적 용어가 바로 정당화(justification)개념이다. 참의 개념은 그것대로 적잖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지만 많은 현대 인식론자들은 바로 이 정당화개념에 관심과 논의를 집중시켜 왔다. 그리하여 지식의 정통적 정의에 부합되지 않으면서도 지식이라 할 수 있는 반례(反例)들이 논의되고, 그러한 반례까지 소화시키기 위해 정통적 규정을 보완 내지는 수정하는 작업도 있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당화개념 자체를 회의적 시선으로 보려는 입장도 있었다.

여기서 정당화란 인식적인(epistemic)의미에서의 정당화를 말함은 물론이다. 인식적 정당화의 문제는 바로 과학의 철학적 정초문제와 마찬가지이다. 과학이라는 것을 지식의 체계로 보았을 때 과학의 기초를 묻는 문제는 그대로 그러한 체계를 이루는 지식이 지식으로서 어떻게 정당화되는가 한는 문제와 같은 문제가 된다. 또 체계를 체계로 만드는 데에는 어떤 기본원리가 작용하였을 것이고, 따라서 과학의 정초문제는 궁극적으로 그 기본적인 원리들의 정당성문제와 다름이 아닐 것이다.

일찍이 러셀(R. Russell)이 수리철학에서 심혈을 기울려 해결하려 애썼던 문제도 바로 과학, 특히 과학들 중에서도 가장 엄밀한 것으로 알려진 수학의 기초를 어떻게 하면 확립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다. 수학의 철학적 기초를 확립하려고 한 러셀의 시도의 결과는 이른바 '유형(類型)이론'과 '집합이론'이라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여 러셀은 수학을 논리학과 집합이론으로 환원시켜 그 기초를 밝히려 하였다. 그러나 러셀이 본 프레게(G. Frege)의 집합이론은 그 자체 내에 중대한 모순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 모순은 소위 '자신을 한 구성요소로 가지지 않는 집합들의 집합'이라는 개념때문에 생기는 모순이었다. 이 모순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수학을 논리학과 집합이론으로 환원시키고자 한 러셀의 노력은 무위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러셀은 집합의 존재를 이론을 구성하는 데 사용되는 논의의 차원(levels of discourse)에 상대적인 것으로 만듬으로써 이 모순에서 빠져나가고자 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구성적 집합론'(constructive set theory)의 시초이다. 구성적 집합론이란 수학적인 존재에 관한 논의를 일정한 류의 언어에 상대화시키고, 이에 의거하여 수학의 철학적 정당화를 찾아보려 한 시도라 할 수 있다.

이와같은 시도는 사실은 이십세기 러셀에서 처음으로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 부터 서구의 학문사에선 줄기차게 있어왔다. 과학적 정당화를 문제삼는 것이 철학의 과업이라 한다면 과학과 철학은 적어도 이 점에서는 분명히 구별될 수 있겠고, 이러한 구별은 멀리 희랍의 철학에서도 발견된다. 그 유명한 선분에 관한 플라톤의 대화는 희랍의 철학이 과학, 특히 수학과 기하학에 대하여 상위에 있음을 말해주는 최초의 진술이라 여겨진다. 플라톤에 의하면 수학에서 우리는 공리나 원리를 미리 가정하고 설정하여 이것으로부터 여러가지 수학적인 지식들은 연역해낸다. 이 공리적 방법의 근

거를 묻는 것이 바로 철학의 할 일이다. 따라서 플라톤에 의하면 철학의 근본과제는 바로 이 공리들을 정당화시키는 일이 된다. 이러한 과제는 철학중에서도 특히 인식론의 과제이다. 바로 이같은 이유로 플라톤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철학자들은 철학의 궁극적인 관심중에 인식론을 포함시켜 왔고, 지식의 기본원리들을 어떻게 정당화시키는가 하는 물음을 철학의 근본적인 물음의 하나로 여겨왔다. 만약 과학이 지식의 모범적인 체계로 간주된다면 위의 인식론적인 과제는 바로 과학 자체를 정당화시키는 과제와 같다고 하겠다. 더 나아가 철학은 철학자체도 하나의 체계로서 자리잡을 수 있으려면 자기정당화도 문제삼아야 할 이중의 부담을 안게 된다. 인식론을 '철학의 철학', 또는 '메타철학'이라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철학을 과학과 구별시키고 과학에 대한 철학의 우위를 주장한 플라톤과는 달리 서양의 중세는 과학의 기초문제, 따라서 인식론의 기본과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시기였다. 기독교라는 종교가 일체의 지식에 대한 회의를 금지시켰기 때문에 과학자체에 대한 인식론적 반성도 가능할 수 없었으리라 추측된다. 과학의 기초문제를 철학의 중심문제로 재등장시킨 것은 그 후 데카르트(R. Descartes)에 와서 였다. 데카르트는 적합한 기초가 없는 과학은 과학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였다. 당시 과학으로 알려져 있던 대부분의 것들이 적절한 인식론적 기초를 결여하고 있음을 간파한 데카르트는 과학을 그 뿌리에서부터 새로이 정초지우려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물론 일반적으로 평가되고 있듯이 데카르트의 시도가 지나치게 야심적인 것이었지만 그 시도자체는 철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대단히 의미있는 작업이었다. 모든 것을 단 하나의 원리, 즉 자아존재의 확실성이라는 단일한 원리에 비추어 그 근거를 찾으려 했음은 애초부터 무리한 시도였고 이루어질 수 없는 과업이었음은 사실이다. 데카르트가 사유와 탐구의 방법을 강조한 것까지는 좋았으나 "나는 생각

한다"는 명제로부터 다른 것으로 넘어가는 단계는 정당화되지 않은 비약일 수밖에 없었다. 데카르트는 특히 스콜라 철학의 형이상학이 무비판적으로 사용하였던 개념과 용어들을 되묻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다는 비판을 받는다. 특히 형이상학적인 원리들, 이를테면 "원인에는 적어도 결과에 있는 만큼의 실재성이 있다"와 같은 원리를 데카르트는 신의 존재증명을 위하여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이는 모두 인식론적으로 정당화되기 힘든 것들이었다.

근세의 합리론 뿐만 아니라 경험론도 과학의 기초를 밝히는 인식론적 과업에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였다. 영국의 고전 경험론의 결정적인 잘못은 오류불가능하고 절대 확실하다고 주장되는 경험의 최소단위가 결국은 사적인(private) 성격을 벗어날 수 없었다는 데에 있다. 인식주관의 사적인 경험과 객관적인 이론사이의 간극(間隙)을 영국경험론은 끝내 연결시켜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경험론자 흄(D. Hume)은 과학의 인식론적 정당화가 아예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기까지 하였다. 과학의 논리적·인식적 정당화문제는 처음부터 흄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흄의 관심은 오히려 논리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데도 해결하고자 애쓰는 인간심리의 미묘함을 해명해 보자는 데에 있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그 후 칸트는 흄의 이러한 경험론은 곧 인식론적인 파멸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칸트에 의하면 고전 합리론도 이 점에선 더 나을 것이 없었다. 과학의 정당화가 가능하고 인식론이 설 자리가 마련되고자 한다면 어떻게해서든지 새로운 기초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 칸트의 일생일대의 과업이었고, 바로 이것이 그의 소위 '비판철학'의 첫번째 과제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칸트는 "과학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라는 물음을 철학의 제일의 질문으로 여겼다. 칸트는 뉴튼(I. Newton)의 과학이 실지로 성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학이 의심의 여지없이 가능하다고 보았고, 따라서 칸트의

문제는 과학이 가능한가가 아니라 어떻게 가능한가하는 문제였다. 한마디로 칸트는 과학의 가능조건을 인간의 마음에서 찾았다. 칸트에 의하면 우리는 자연에 관하여 우리의 마음이 자연에 부여하고 심어놓은 바대로 안다.

이러한 칸트의 입장은 이와 기본적인 틀을 같이하는 이십세기 초 후설(E. Husserl)의 현상학과 함께 그 후의 소위 '인식론적 자연주의자'들의 비판의 표적이 된다. 칸트와 후설의 인식론이 가졌던 공통적인 난점은 어떻게 과학의 정당화문제가 선험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들에게서 가장 중요했던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의식으로부터 세계로 나아가느냐, 즉 어떻게 하면 주관을 초월하는가 하는 문제였다. 이십세기 중엽경부터 일기 시작한 인식론에서의 자연주의 운동이 가장 명시적으로 반대한 것도 바로 칸트나 후설류의 인식론이었다.

III. 심리주의적 전회

근세이후부터 이십세기의 소위 '언어적 전회'(linguistic turn)가 있기 이전까지의 서양의 인식론은 심리주의적이고 記述的인 (descriptive) 인식론이었다. 특히 서양의 근세철학자들은 대부분 지식의 원천과 범위를 밝히고 지식이 어떻게 획득되는지의 심리적 과정을 기술하는 일이 인식론의 주요과제라고 여겼다. 근세의 인식론은 지식의 획득, 또는 더 일반적으로 말하여 믿음획득의 심리적 과정을 중요시하였다. 참된 믿음이 지식으로 간주될 수 있느냐 하는 전통적인 문제는 참된 믿음도 일종의 심리적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심리적 상태가 어떻게 적합한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것이 근세인식론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였다. 다시 말하

여 지식과 참된 믿음의 차이점에 관한 문제는 어떤 특정한 심리적 상태가 산출되는 방식과 관련된 문제라고 보았다. 이러한 접근방식이 '심리주의적'이라고 불리우는 까닭은 믿음이 산출되는 과정의 끝부분에는 항상 심리적인 사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래서 17, 8세기의 많은 철학자들은 여러가지의 지식을 만들어내는 심리적 과정을 기술함이 인식론의 주요과제로 여겼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식이 이십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점차 힘을 잃게 된다. 이십세기 서구철학의 특징은 심리적 활동이나 능력을 기술하는 인식론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데에서 찾아진다. 지식과 참된 믿음과의 차이점은 인식주관의 심적 상태와는 무관한 방식으로 찾아져야 한다는 것이 이십세기 인식론의 기본입장이었다. 중요한 것은 인식주관의 심리적 과정이 아니라 그의 믿음체계의 특성, 믿음의 대상이 되는 명제의 본성, 그리고 명제들의 논리적 상호 연관성 등이었다.

이러한 새로운 접근방식은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프레게(G. Frege)의 철학적 작업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인식론을 철학적 탐구의 전면에서 밀어내고 그 자리에 언어철학을 대체시킴으로써 소위 '언어적 전회'를 일으킨 선두주자가 바로 프레게였다. 이러한 방법론적인 특징은 "철학은 자연과학의 하나가 아니다"[2], "심리학은 다른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이제 더 이상 철학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3] 는 등의 초기 비트겐슈타인(L. Wittgenstein)의 말에서도 분명히 드러나 있으며, 비트겐슈타인 뿐만 아니라 러셀, 카르납(R. Carnap) 등 이십세기 초의 대부분의 철학자들에게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한결같이 철학적인 문제, 특히 인식론적인 문제는 논리적인 문제로서 심리적인 문제와는 엄밀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

---

2) L.Wittgenstein, *Tractatus Logico-Philosophicus*, T.4.111.
3) L.Wittgenstein, *Ibid.*, T.4.1121.

하였다. 이들에게는 마음 속에서 지식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어떻게 기술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는 철학적으로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근세영국의 고전경험주의자들이 시도하였던 심리분석은 현대의 언어철학자들의 눈에는 심리적인 문제와 논리적인 문제를 혼돈한 대표적인 경우로 비친다. 인식론은 왜 인간들이 그러저러한 관념과 믿음들을 그러저러한 방식으로 가지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문제에는 전혀 관심을 둘 필요가 없으며, 그러한 점에서 인식론은 심리학과는 전적으로 성질을 달리하는 분야라는 주장은 이십세기 중반경까지의 거의 모든 철학자들의 일치된 견해였다.

근세의 기술적 또는 심리주의적 인식론에 대비되는 이러한 경향의 이십세기초의 인식론을 우리는 보통 '분석적'(analytic)인식론[4] 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사실 이러한 경향은 이미 칸트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하튼 분석적 인식론은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명제들이 어떻게 서로 연관되고 연결되어 있는지는 순전히 논리적인 문제로서 그 명제들에 대한 믿음이 실지로 발생하게 되는 심리적 과정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고서도 결정될 수 있다고 본다. 말하자면 인식론은 기본적으로 일종의 규범학으로서 정당성(justification) 문제를 다루어야 하지 이 문제와는 전적으로 별개의 문제인 발견(discovery)의 문제는 전혀 다룰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분석적 인식론에서 가장 중요한 인식론의 과제로 떠오른 것이 정당화문제였으며, 아직까지도 논의되고 있는 토대주의(Foundationalism)니 정합주의(Coherentism)니 하는 서로 다른 입

---

4) 골드만은 인식론의 목적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인식론을 기술적(descriptive)인식론, 분석적(analytical)인식론, 규범적(normative)인식론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였다. cf. A.I.Goldman, "The Relation between Epistemology and Psychology", in *Philosophy, Mind, and Cognitive Inquiry*, ed. by D.J.Cole, Kluwer Academic Pub.1990.

장들간의 싸움도 바로 이 정당화문제와 관련된 논쟁이다.

지식일반의 정당성을 문제삼는 소위 '제 1 철학'으로서의 인식론의 위상에 대한 이러한 확신은 그러나 금세기 중반경부터 점차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심리학, 생물학등의 여러 자연과학분야에서의 연구결과들에 힘입어 인식론과 형이상학에서의 전통적인 물음들을 새롭게 해 보려는 시도가 특히 영미철학자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경향은 이미 삐아제(J. Piaget)가 독자적으로 수립한 발생론적 인식론(Genetic Epistemology)에서도 나타나 있었고, 또 포퍼(K. Popper)나 캠벨(D. Campbell) 등으로 대표되는 진화론적 인식론(Evolutionary Epistemology)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5] 그리고 철학내부에서는 프레게를 위시한 분석

---

5) 진화론적 인식론은 인간지식에 관한 문제를 진화론에 호소함으로써 생물학에서 대답되어질 수 있다고 본다. 이 인식론에 의하면 인간이란 진화과정의 한 산물로서 인간의 지식과 믿음도 생물학적 기본법칙에 의거하여 이해될 수 있다. 예컨대 포퍼가 제시하고 뮨츠(P.Munz)가 재구성한 진화론적 인식론의 논변은 다음과 같다.

P1 우리는 사실상 지식을 가지고 있다.

P2 어떤 정당화도 가능하지 않다.

∴P3 인간지식은 정당화를 포함하지 않는다.

∴P4 모든 지식은 개조될 수 있는 임시적인 제안 내지는 가설이다.

(cf. P.Munz, *Our Knowledge of the Growth of Knowledge: Popper or Wittgenstein?* Routledge and Kegan Paul, 1987, p.371.)

이러한 이유로 포퍼는 인식론의 유일한 문제가 인간지식의 성장문제라고 보았다. 또는 인간지식이 어떻게 생성되고 성장하는지하는 생물학적인 문제라고 보았다. 따라서 인식론은 전통적 인식론이 그랬던 바와 같은 의미로서의 규범적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순전히 기술적인 것이다.

그러나 포퍼의 이 논변에 대해서, 이 논변이 특별히 '생물학적이다' 또는 '진화론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는가, 세계에 대한 어떠한 사실적 주장도 지식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한 흄(D.Hume)의 논변을 그냥 받아들인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다.

진화론적 인식론에대한 좀 더 상세한 논의는 다음의 글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M.Ruse, *Taking Darwin Seriously: A Naturalistic Approach to Philosophy*, Blackwell, 1986.

W.W.Bartley Ⅳ, "Philosophy of Biology versus Philosophy of

적 인식론자들이 그토록 강하게 거부하였던 인식론적 자연주의의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소위 '자연주의적'(naturalistic) 인식론은 지식이란 무엇인가, 지식이라고 간주되기 위해선 어떤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하는가 등등의 전통적인 인식론적 물음들을 물론 외면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물음들에 대답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프레게 이후의 분석인식론의 방식과는 분명한 거리를 취한다. 프레게 이후의 분석적 인식론자들에게서 위의 인식론적 문제들은 논리의 문제, 개념분석의 문제로 취급되었다. 이들에게서 지식이란 참된 믿음의 일종이었고, 철학의, 인식론의 제일차 작업은 참된 믿음들 중에서도 지식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을 규정해 줄 제 3의 조건[6]을 밝혀내는 일이었다. 이 작업은 명제들의 어떤 논리적 성질 또는 관계들이 정당화라는 조건을 만족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이루어졌고, 따라서 지식의 가능성에 도전하는 회의주의에 대한 대응도 회의주의의 주장을 정식화시켜주는 명제들이 과연 문법에 어긋남이 없는지를 따져보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었다.

이러한 모든 작업은 두 가지의 기본전제 아래 이루어졌다. 그 첫번째 전제는 프레게나 전기 비트겐슈타인을 따라 인식론적인 문제는 반심리학적 방법으로 탐구되어야 하며 심리학이 아니라 논리학이 인식론적 탐구의 기본도구가 되어야한다는 것이었고, 철학적 성찰이나 반성의 결과로 생긴 것은 경험과는 무관한 선험적인(a priori) 것, 지식이란 논리적 분석의 대상이라는 것, 그리고 과학방법론을 발전시키거나 개선시키는 일은 과학의 논리를 정확하게 정식화하는 데 있다는 것 등이 그 두번째 전제였다.

Physics", in G.Rand-nitzky(ed.) *Evolutionary Epistemology, Rationality and the Sociology of Knowledge*, Open Court, 1987.

6) 참, 믿음, 정당화 — 이 세가지가 각각 전통적인 지식규정에서 지식의 필요조건으로 되어있다. 제 3의 조건이란 그 중에서 정당화의 조건을 말한다.

자연주의 인식론은 이 두가지 전제들을 모두 거부한다. 자연주의 인식론이 이러한 전제들을 거부하는 이유는 그것이 인간과 인간의 지식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태도를 달리하기 때문임은 물론이다. 자연주의 인식론은 인간을 오류를 저지르기 쉬운 인지체계를 가진 種, 오랫동안의 진화과정을 거쳐 형성된 인지체계를 가진 種으로 본다. 따라서 인간의 심리학적, 생물학적 능력과 한계들도 지식을 탐구하는 데에 고려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자연주의 인식론의 기본입장이다.

IV. 콰인과 자연주의

자연주의적 인식론의 입장을 취한 대표적인 학자는 물론 콰인(W.V.Quine)이다. 1960년대에 발표된 유명한 논문, '자연화된 인식론'(Epistemology Naturalized)[7]에서 콰인은 전통적 인식론의 문제가 넓게 보아 결국은 과학의 기초문제에 다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수학의 기초이든 자연과학의 기초이든 학문일반의 기초가 어떻게 확실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전통적 인식론의 핵심적인 문제였다는 것이 콰인의 견해이다. 우리가 과연 확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가 데까르트 이후의 전통인식론의 기본방향을 결정지었다는 것이다. 콰인의 설명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인식론의 근본문제는 우리가 도대체 우리 주위의 세계에 대하여 어떻게 아는가하는 문제였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것이 감각에 기초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는 데까르뜨의 제1성찰

---

7) W.V.Quine, "Epistemology Naturalized", in *Ontological Relativity & Other Essays*, Columbia Univ. Press, 1969.

에서 이미 논의되었다시피 세계가 우리에게 지각되는 바와는 전혀 다른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그러한 가능성이 완전히 제거되어야만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의 기초가 마련될 것인데, 그러한 회의주의적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의 문제에 전통적 인식론은 매달려 왔다.

그러나 콰인의 견해에 의하면 전통적 인식론은 회의주의를 논박하는 데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고, 또 앞으로도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것이다. 수학이 집합론으로는 환원될지 몰라도 논리학으로는 결코 환원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선 콰인은 특별히 강조한다. 나아가 그는 수학적 지식은 차치하고서라도 그것과 전혀 성질을 달리하는 자연적 지식, 또는 자연에 관한 지식의 기초를 마련하려는 시도도 결코 성공을 거둘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카르납의 소위 '합리적 재구성'(rational reconstruction)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자연적 진술의 감각경험적 진술에로의 환원은 성공될 수 없는 시도였다. 자연에 관한 우리의 지식의 정당성 문제는 카르납의 시도가 성공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되기 훨씬 이전 이미 흄(D. Hume)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는 문제로 낙인찍힌 바 있다. 콰인이 보기에 흄이 제기 하였던 귀납의 문제는 아직도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으며, 그러한 점에서 "흄의 困境은 바로 인간적 곤경이다."[8](흄이 지적한 인식론적 곤경은 바로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곤경이다.)[9] 콰인은 감각적 진술에서 확실성의 기초를 찾음으로써 회의주의를 논박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성공될 수 없음을 흄이 분명히 밝혀 놓았다고 본다.

이러한 고찰로부터 콰인이 이끌어내려는 결론은 한마디로 전통적인 인식론은 이제 죽었다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제1철학같은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자연과학의 방법을 정당화시켜줄 엄밀한 철학적 진리라는 것도 있을 수 없다. 인간들이 어떻게 자연과 세계에 대하여 현재 가지고 있는 바와 같은 이론들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기술하고

---

8) W.V.Quine, *Ontological Relativity & Other Essays*, P.72.
9) 필자해석.

설명하는 작업만이 인식론의 남은 과제에 속한다. 그러한 점에서 인식론은 이제 경험과학 특히 심리학의 한 분과가 되어야 한다. 자연과학의 방법을 인식론으로 정당화 시키려하는 것은 그것을 또 다른 경험과학으로 정당화 시키려함과 마찬가지이다. 귀납에 근거한 믿음을 가질 수는 있으나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믿음자체는 정당화될 수 없다. 다시 말하여 인식론은 이제 콰인의 주장에 의하면 자연과학의 한 분과로 전락(?)하고 유일한 의미있는 인식론적 물음도 자연과학의 방법을 사용하여 자연과학 안에서 제기되고 대답될 수 있을 뿐이다. 인식론의 성격을 이와같이 본다는 것은 인식론의 과업을 우리의 믿음의 원천을 기술하고 그 믿음을 정당한 것으로 여기게끔 하는 조건들을 기술하는 일을 주기능으로 하는 기술심리학의 과업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는 뜻이 된다. 그러므로 과학적 지식의 본성과 한계에 대한 전통철학의 인식론적 논의들은 어떠한 성공적인 결과도 산출해낼 수 없는 공허한 말놀이에 지나지 않는다.

콰인의 위와같은 주장이 끼친 영향과 파문은 매우 다양하고 심대했다. 무엇보다도 인식론적 작업을 노이라트(O. Neurath)의 배(배가 바다위에 떠 있는 상태에서 바로 배 내부에서 배를 수선하는 작업)에 비유하면서 그것이 경험과학적 작업과 다를 수 없다는 주장은 특히 적잖은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그 이후의 많은 인식론적 논의의 기폭제가 되었다. 왜냐하면 인식론이 심리학의 한 분과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인식론적 작업이야말로 다른 여타 과학에서 찾아볼 수 없는, 따라서 다른 과학의 작업들보다는 상위에 있는, 철학 고유의 기능이라는 전통적인, 오랫동안 철학자들의 마음 속에 뿌리깊이 박혀있던, 생각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되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이유만으로도 콰인의 자연주의 인식론에 대한 비판과 반론이 적잖이 제기되었다. 콰인의 이론에 대한 반론은 대개가 철학의 핵심은 인식론이며 철학이 다른 과학과는 구별되고 그것들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이유를 인식론에서 찾고자하는 인식론 중심의 전통적 철학관이 콰인에 의하여 위태롭게 되었다는 통찰에서 비롯된 것들

이다. 다시 말하여 그것들은 전통적인 인식론의 기본동기와 책략을 잃지 않으려는, 또는 잃어서는 안되겠다는 태도에서 나온 것들이다. 퍼트남(H. Putnam), 김재권, 스트라우드(B. Stroud)같은 학자들이 제시한 반론들이 그 대표적인 것들에 속한다.[10] 여기에선 스트라우드의 반론만 간략히 소개하겠다.

스트라우드에 의하면 물리적 대상의 존재에 대한 가설이 어떻게 다른 가설들(예컨대 데까르뜨의 꿈의 가설이나 악마의 가설, 또는 퍼트남이 말한 통속의 두뇌가설)보다 더 나은 가설인가 하는 문제는 콰인의 이론에서 해결되지 않은채로 남아 있다. 스트라우드가 보기에는 이 문제야말로 인식론의 핵심적인 문제인데 콰인의 자연주의적 인식론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마련해 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콰인도 이 문제를 문제로서 인식은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문제는 개념적인(conceptual) 차원과는 다른 이설적인(doctrinal) 차원에 속하는 문제로서 이미 경험론자 흄이 지적한대로 인간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곤경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콰인의 입장이다. 세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정당화 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성공을 거둘 수 없다는 점은 이미 흄에 의하여 지적된 바 있다. 그래서 콰인에 의하면 이 문제는 자연주의적으로, 다시 말하여 경험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이 순환론에 빠질 것임은 두말할 여지도 없거니와 콰인도 이 점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콰인은 전통적 인식론이 문제삼는 정당화가 문제가 안된다면 이 순환이 악순환은 아니라고 본다. 그런데 바로 이 문제에서 콰인

---

10) 퍼트남과 김재권의 비판은 다음의 글들에 나와있다.
H.Puntnam, "Why Reasons Can't be Naturalized", *Synthese*, Vol.52. 1982, pp.3-23.
J.Kim, "What is 'Naturalized Epistemology'?" in *Philosophical Perspectives 2*, Epistemology, 1988, pp.381-405.

이 그렇게 확고한 입장을 가진 것 같지 않다는 것이 스트라우드의 지적이다. 왜냐하면 또 다른 곳[11]에서 콰인은 외부세계에 관한 지식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우리는 심각하게 간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트라우드가 지적하는 또 하나의 사항은 과학적 추리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콰인의 시도가 실패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콰인의 생각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획득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믿음들이 세계에 관한 올바른 믿음인지 아닌지에 대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에서 우리 자신도 우리의 믿음들이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할 아무런 이유도 없게 된다.[12] 말하자면 지식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지 우리는 결코 이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만약 콰인의 자연주의적 인식론이 외부세계에 대한 지식이 가능한지 아닌지 하는 철학적 질문에 답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래도 그 질문은 합법적인 질문이라고 인정한다면(콰인은 그것이 합법적인 질문이 아니라는 논변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자연주의적 인식론은 바로 그 합법적인 질문에 답변을 내놓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13] 따라서 인식론의 전통적인 질문이 합법적인 질문이 아니라는 점은 논증이 안되었고, 회의주의적 질문을 과학내부에서 일어나는 과학적 질문으로 해소시켜버리려는 시도도 실패하였다는 것이 스트라우드의 비판이다.

다른 한편 골드만(A. Goldman)은 정당화개념 자체는 그대로 인식론에 존속시키면서도 정당화를 위한 규칙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경험적, 사실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길을 찾음으로써 콰인식의 자연

---

11) W.V.Quine, *Roots of Reference*, Open Court, 1975.
12) cf. B.Stroud, "The Significance of Naturalized Epistemology", in *Naturalized Epistemology*, ed. by H.Kornblith, MIT Pres, 1985. P.83.
13) cf. B.Stroud, Ibid, PP.85-86.

주의와 전통적 인식론의 접합을 시도한다. 골드만은 정당화개념이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가하는 문제에는 관심이 없다. 다만 하나의 믿음이 정당화된다는 것은 그 믿음이 참인 믿음을 거짓믿음에 비하여 더 많이 산출해내는 과정에 의하여 생긴다는 것과 같다는 일종의 메타원리를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이 참인 믿음을 더 많이 산출해 내는, 믿을만한(reliable) 과정인지를 심리학적 자연과학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골드만의 이러한 접근방식은 콰인의 자연주의적 인식론이 가지는 극단성, 즉 인식론 자체의 위상마저 허물어 버릴 수 있는 극단성을 피하면서도, 그리하여 인식론에서 규범적인 측면을 유지시키면서도 경험과학적 방법, 특히 인지과학의 여러 성과들을 인식의 문제를 다루는 데에 사용하기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적잖은 주목을 받고 있다.[14]

인지과학적 접근을 시도하는 학자들 중에는 골드만 외에도 기이리(R. Giere)와 쳐치랜드(P. Chuchland)의 작업도 주목할만 하다.[15] 기이리는 자연주의적 인식론의 정당성이 전통적 인식론이 취하였던 고전적 패러다임을 거부함으로써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자연주의 인식론을 위한 논변은 오히려 경험과학을 실지로 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그냥 보여줌으로써, 그리고 옛 패러다임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이와는 무관함을 보여줌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점을 그는 17세기의 물리학이 생겼을 때의 상황에 비유하여 설명한다. 17세기의 물리학이 스콜라철학과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당시의 자연과학자들이 스콜라주의자들의 논변을 정면으로 논박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

14) cf. A.I.Goldman, "What is Justified Belief?" in *Naturalized Epistemology*, PP.91-114.
A.I.Goldman, *Epistemology and Cognition*, Havard Univ.Press, 1986.

15) cf.R.Giere, *Explaining Science: A Cognitive Approach*, Univ. of Chicago Press, 1988.
P.S.Chuchland, *Neurophilosophy*, MIT Press, 1986.

자연과학이 이룩한 성공이 그 논변들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16] 기이리는 현대 자연주의 인식론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본다.[17]

V. 합리성과 선험성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으로는 어떤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으며 또 어떤 방향으로 그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지를 합리성과 선험성이라는 두 개념에 대한 새로운 논의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 첫번째 논의는 서구인식론 전반의 기본전제인 합리성 자체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슈티치(S. Stich)의 논의이다. 옛부터 철학자들은 인간을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동물로, 또는 적어도 합리성을 추구하고 합리성을 성취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 여겨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래서 논리학은 고대 희랍의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나 현대의 프레게, 러셀, 크립키등에 있어서나 철학의 핵심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지난 3, 40년간의 인간의 추리에 대한 경험과학적 탐구는 인간의 추리가 반드시 합리적 방식으로 된다는 전통적인 신념에 도전을 하기 시작하였다. 카네만(D. Kahnemann)과 트베르스키(A. Tversky)의 공동작인 『불확정성하에서의 판단』[18]이나 존슨·레어드(P.N. Johnson-Laird)의 『정신적 모델』[19]같은 저작은

---

16) cf. R.Giere, *Explaining Science: A Cognitive Approach*, P.9.

17) 쳐치랜드도 신경과학의 경험적 성공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연적으로 전통적 규범인식론을 버리게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예언을 하고 있다.
cf. P.S.Chuchland, "Epistemology in an Age of Neuroscience", *The Journal of Philosophy*, vol.LXXXIV, 1987.

18) D.Kahnemannm, A.Tversky, and P.Slovic, *Judgement under Uncertainty: Heuristics and Biases*, Cambridge Univ.Press, 1982.

인간의 추리가 합리성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여러가지 실험과 함께 실증적으로 보여주고자 한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그러한 실험들의 결과는 인간이란 소위 '논리적 기계'(logic machine)이다라든가, 문제 속에 주어진 특수한 정보내용과는 무관하게 동일한 형식의 추리를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기존의 생각에 회의를 가져오게 하였다. 대신에 이들 실험결과들이 함축적으로 말해주는 바는 인간이란 이성적인 컴퓨터와는 같을 수 없다,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논리학을 사용하지 않는다, 논리학자들이 말한 류의 논리학은 보통의 정상인들과는 무관하다, 문제를 풀기 위하여 진리표를 작성하고 진리치를 계산하는 식의 접근은 보통 사람들은 하지 않는다, 즉 형식적인 추론규칙에 의거하지를 않는다 등등이다.

경험심리학의 이와같은 연구결과들에 근거하여 이십세기의 전통 분석적 인식론에 제기된 반론들 중에서 특히 슈티치의 반론은 주목할만 하다. 슈티치는 『이성의 분열』[20]이라는 저서에서 어떤 인식방법이 다른 것보다 낫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일반적인 규범적 설명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슈티치는 다음과 같은 사고실험을 해볼 것을 제안한다. 엄청난 능력을 가진 마귀가 있어서 우리의 추리방식, 우리의 믿음이 형성되는 방식, 우리의 마음이 작용하는 방식에 다양한 변화를 준다고 가정해 보자. 이러한 경우 여러가지 가능한 변화들 중에 어떤 변화가 더 바람직한 것인지는 우리가 결정해야 할 일일터인데 이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그 마귀는 그러한 변화들을 받아들였을 때 어떤 결과들이 따를지를 말해줄 수 있다. 즉 어떤 변화는 우리로 하여금 정당화된 믿음은 더 많이 그리고 정당화되지 않은 믿음은 더 적게 가지도록 해주는 반면, 또 어떤 변화는

---

19) P.N.Johnson-Laird, *Mental Models*, Havard Univ.Press, 1984.

20) S.Stich, *The Fragmentation of Reason*: Preface to a Pragmatic Theory of Cognitive Evaluation, The MIT Press, 1990.

현재보다 더 많은 참된 믿음과 더 적은 거짓 믿음을 가지게 해 준다는등등. 슈티치가 이 사고실험으로부터 끌어내리려는 주장은 우리가 우리에게 더 많은 참된 믿음이나 더 많은 정당화된 믿음을 가져다 주는 인식체계를 특별히 선호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여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듯이 정당화된 믿음을 가지는 것이 내재적으로나 도구적으로나 더 가치있다는 생각에 하등의 필연성도 없다는 것이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슈티치는 정당화나 참의 개념이 그와 유사한 많은 다른 개념들 중의 하나일 뿐이며, 다른 개념들과 비교하여 어떠한 분명한 이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우리의 문화적 전통에 의하여 선택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당화나 참의 개념이 이러하다는 점은 슈티치의 분석에 의하면 골드만의 정당화개념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골드만에 의하면 정당화된 믿음이란 참된 믿음을 거짓된 믿음보다 더 많이 생기게 하는 심리적 과정에 의하여 산출된 믿음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이 이해될 수 있기 위해선 골드만 스스로도 말하였다시피 그 과정들이 일어나는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가 밝혀져야 한다. 골드만의 견해에 따르면 우리의 직관에 가장 잘 부합되는 정당화 개념의 설명은 심리적인 과정의 신빙성이 실재세계가 아니라 소위 '정상세계'(normal world)라 불리우는 세계에서 평가되는 설명이다. 정상세계란 우리의 일반적인 형이상학적, 존재론적 믿음들이 참이되는 그러한 세계이다. 여기에서 슈티치가 특별히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골드만의 이러한 설명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당화라는 개념이 가능세계들의 특성들을 변화시킴으로써 만들어질 수 있는 비슷한 많은 유사개념들 군(群)이 차지하는 광대한 공간의 조그만 그리고 특이한 영역만을 차지하고 있는 개념일 뿐이라는 암시가 함축되어 있다는 점이다. 정당화와 유사한 개념들은 가능세계의 변수들을 변화시킴으로써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 우리의 직관에 부합된다

는 이유만으로 정당화 개념만이 특별한 지위를 가진다고 생각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우리가 다른 유사개념들을 제쳐두고 정당화 개념만을 상속받아 왔다는 사실은 단순히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우연에 불과하다.

그래서 슈티치는 정당화 개념의 이런한 우연성에 근거하여 정당화된 믿음, 또는 그러한 믿음을 산출하는 인지과정을 가지는 것이 내재적으로 가치있다는 전통적인 생각에 반기를 든다. 내재적으로 가치있다고 할 수 없다면 적어도 도구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법하다. 왜냐하면 정당화된 믿음이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치있다고 보는 어떤 것을 달성하는 데 특별히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정당화 개념의 우연성을 놓고 볼 때 이 개념을 갖는 것이 다른 유사개념을 갖는 것보다 도구적으로 더 가치있다는 점을 확연히 보여주기는 힘들다는 것이 슈티치의 주장이다. 그는 이와 관련하여 앞서 말한 그 마귀가 우리에게 두 인지체계를 제공한다고 가정해 본다. 그 중 하나는 정당화된 믿음을 정당화하지 않은 믿음에 비해 더 많이 생산해내는 체계이고, 다른 하나는 정당화의 유사개념군의 하나인 정당화*된 믿음을 비정당화*된 믿음보다 더 많이 생산하는 체계라고 해보자. 이럴 경우 정당화된 믿음을 가짐이 정당화*된 믿음을 가짐보다 내재적으로나 도구적으로나 더 가치있다고 생각할 하등의 이유도 발견할 수 없으며, 따라서 두 체계중 어느 체계를 선택해야 할지는 규범의 문제가 아니라 우연의 문제에 속한다. 참된 믿음에 관하여서도 마찬가지의 논변이 성립한다. 슈티치에 의하면 각각의 믿음들에 대하여 참 또는 거짓을 할당하는 우리의 해석함수는 가능한 여러 함수중의 하나일 따름이다. 그러므로 해석함수에서의 지시(reference)관계 이외에도 지시* 관계란 것도 있을 수 있고 이와 유사한 많은 대안적 관계들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다양한

유사함수와 유사관계에 따라 참 이외에 참*, 참** 등등도 있을 수 있다. 슈티치는 이에 근거하여 참인 믿음이 내재적으로나 도구적으로나 특별히 가치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슈티치에 따르면 참*인 믿음이 아닌 참믿음을 가지는 것을 내재적으로 가치있다고 봄은 우리의 문화가 물려준 해석함수를 반성없이 받아들이는 보수적인 태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도구적으로도 참*인 믿음이 참인 믿음보다 더 가치 있을 수 있음을 슈티치는 몇가지 예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이상 간략히 고찰한 슈티치의 주장은 말하자면 현대판 인식 상대주의의 주장에 속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런한 과격한 주장에 대하여 어떠한 반론이 가능하며 또 실지로 어떤 반론들이 제기되었는지에 대한 고찰은 생략하겠다. 다만 이 글에서는 현대인식론의 여러 경향들 중에서 정당화 개념자체를 거부하려는 슈티치의 주장이 바로 인식의 규범성을 회의적으로 본다는 점에서 앞서 고찰한 자연주의적 인식론과 일맥상통하다는 생각에서 소개하였을 따름이다.

그 다음 두번째 논의는 인식론의 핵심개념 중의 하나인 선험성(a priority)과 관련된 논의이다. 이 선험성의 문제는 정당화의 문제와 함께 자연주의 인식론이 하나의 인식론으로 정립하자면 부딪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들 중의 하나이다. 선험적 지식도 과연 자연주의 인식론의 틀내에서 설 자리가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자연주의 인식론에서도 하나의 큰 문제거리가 아닐 수 없다. 이 문제의 심각성은 "선험적 지식이 자연주의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함은 곧 선험적인 지식의 그 '선험성'을 거부한다는 뜻과 같다는 데에 있다. 선험성에 대한 회의는 일찌기 콰인에게서도 제기된 바 있지만 최근 키처(P. Kitcher)의 작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21]

---

21) cf. P.Kitcher, "A Priori Knowledge", *The Philosophical Review*, 76(1980), PP 3-23.
P.Kitcher, "Apriority and Necessity", *A Priori Knowledge*, ed. by

키처는 선험적인 지식의 예로서 수학적인 지식에 관한 새로운 이론을 수립하려 한다. 수학적인 진리에 관한 지식은 자연과학적인 진리에 관한 지식과는 그 종류가 다르다는 것이 대개의 철학자들의 동의를 받아 온 전통적인 견해이다. 일반적으로 수학적인 지식은 인간지식의 전형(典型)으로 여겨져 왔다. 그리고 수학적 지식이 획득되는 방식은 다른 지식들이 획득되는 방식과 다르다는 점도 널리 인정되어 왔다. 수학자들은 실험을 하거나 관찰을 한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수학적인 지식은 지각경험과는 다른 원천에서 나온 것임에 틀림없다. 다시 말하여 수학적인 지식은 선험적인 지식이다.

수학적인 지식이 선험적인 것이라는 전통적인 이론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다. 데까르뜨, 록크(J. Locke), 칸트, 프레게, 카르납등은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러한 이론을 발전시켜 왔다. 금세기에 있었던 수리철학 내에서의 대부분의 논쟁들도 이 이론들간의 내적인 차이점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키처가 내세우려는 이론은 이러한 논쟁들의 공통적인 전제가 되고 있는 수학적 지식의 선험성이라는 논제를 거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보아 수학적 선험주의가 극히 광범위한 지지를 받아 온 것이 사실이지만 이에 의문을 제기하였던 학자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수학도 경험과학의 하나임을 논증하려 하였던 밀(J. S.Mill)이 그 대표적인 예에 속하고, 최근으로는 콰인, 라카토스(I. Lakatos)등의 학자들이 각기 상이한 방식으로 선험주의에 도전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수학적 선험주의를 거부하는 체계적인 입론을 한 것은 아니다. 콰인은 수학적 진술들도 다른 진술들과 마찬가지로 경험적인 반증(disconfirmation)에 부닥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해하고 있는 바대로의 수학적 지식

P.K.Moser, Oxford Univ. Press, 1987, pp.190-207.
P.Kitcher, *The Nature of Mathematical Knowledge*, Oxford Univ.Press, 1984.

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내놓지 못하였다. 퍼트남도 수학이 소위 '준경험적'(quasi-empirical) 추리를 포함한다고 암시하였지만 준경험적 추리에 대한 자세한 논의도 하지 않았고, 그러한 추리의 시작점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다. 라카토스는 자연과학의 방법에 관한 포퍼(K. Popper)의 생각을 수학에 적용시키려 하였지만, 이로부터 어떻게 수학적 지식이 획득되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설명은 하지 못하였다. 요컨대 수학적 선험주의에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반대한 학자들은 더러 있었으나 어떻게 그 대안인 수학적 경험주의 내지는 수학적 자연주의가 하나의 이론으로서 정립될 수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은 아직 없었다.

키처가 지적하는 바도 밀, 콰인, 라카토스등의 학자들의 통찰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다만 그들의 이론이 완성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통찰에 근거하여 소위 '수학적 자연주의' 이론을 완성해 보고자하는 것이 키처의 목표이다. 그는 일단 지식일반, 특히 수학적 지식에 관하여 널리 받아들여진 암묵적인 가정을 버릴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지식을 가지는 존재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도외시하기 쉽다. 예컨대 우리는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체계가 바로 그 개인에 의하여 형성되었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키처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수학을 배운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수학적 지식에 관한 전통적인 입장도 이 점을 물론 부인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배운다는 사실이 인식론적으로 어떤 연관성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선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키처는 이 점을 수학적 지식의 설명에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한다.

키처는 또 수학의 역사적 발전에도 주목한다. 한 세대의 수학자들의 지식은 그 이전 세대의 수학자들의 지식을 확장함으로써 이루어

진다. 수학의 인식론적인 질서를 이해하자면 그것의 역사적 질서도 이해하여야 한다. 대개의 수리철학자들은 수학의 역사란 인식론적인 문제와는 관계가 없다고 여겨왔다. 이들은 현재 개개인의 수학자들이 그 이전 사람들로부터 전승하여 가지게 된 지식체계가 수학이 겪어 온 역사적 과정과는 무관하게 재구축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키처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수학적 지식은 그 개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지식으로 추적함으로써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근거는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지식의 권위에서 찾아진다. 따라서 한 시점에서의 한 개인의 수학적 지식은 그 이전 사람들과 맺고 있는 사슬과 연관하여 설명되어야 한다. 그 사슬의 가장 최근의 끝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교과서나 선생등과 같은 공동체적 권위이다.

그러나 이 설명이 만족스러운 설명이 되려면 지식을 가진 사람들 간에 맺어진 사슬자체가 애초에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도 설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키처가 호소하는 바는 결국 지각(perception)이다. 즉 수학적인 지식은 지각에 의하여 습득된 초보적인 지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오래전 우리의 선조들은 메소포타미아의 어느곳에선가 실지 경험을 통하여 배움으로써 산술과 기하학의 초보적인 원리들을 확립하였다. 우리가 현재 전수받고 있는 방대한 지식체계도 바로 그러한 소박한 시작점에서부터 출발된 것이다. 한마디로 수학이란 무엇이고 수학적 지식의 본성은 무엇인지하는 문제는 구체적인 수학사를 간과하여서는 제대로 대답될 수 없다는 것이 키처의 기본생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키처에서 중요한 인식론적 질문은 어떻게, 그리고 왜 수학적 언어가 변하는가, 왜 어떤 수학적 문제가 더 중시 여겨졌던가, 수학적 증명의 표준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등이다. 요컨대 키처의 이론은 현대인의 수학적 지식을 그 이전의 권위들간의 사슬을 통하여 아주 먼 선조들이 가졌던

지각적 지식에까지 소급해 가자는 것이다.

VI. 결 론

이상 간략히 소개한 슈티치의 합리성 비판과 키처의 선험성 비판은 서구 인식론이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근본바탕을 흔들려고 한다는 점에서 일면 너무 지나친 주장들이란 감을 지울 수 없으나 대개의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는 그 근본바탕이라는 것까지도 되물어 보는 것이 철학의 고유한 기능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러한 주장들이야말로 철학적인 정신에 가장 걸맞는 주장들이라 할 수 있겠다. 학문에 있어서 새로운 것의 창조는 누구나 당연시하고 있는 기존의 사고틀 내에선 이루어지기 어렵고 기존의 틀 자체를 되물어 보고 재점검해 보려는 비판적인 태도에서야 가능할 것이다. 합리성과 선험성은 서구인식론의 구조가 그런 식으로 틀을 잡도록 한 데 결정적인 역할 을 한 개념들이라 해도 과언은 아닌 것이다. 이 두 개념이 인식론이 생긴 유사이래 지금까지 그토록 많은 인식론적 논의의 핵심이 되어 온 데에는 인간의 지식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형되고 발전되어 왔든지간에 인식이 인식으로 평가 받기 위해선 꼭 갖추어야 할 어떤 초시대적, 초역사적인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믿음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리라. 그러나 인식의 논리성만큼이나 또한 중요한 것이 인식의 역사성이다. 인식의 논리적 측면을 무시하고서는 인식과 인식아님의 구별이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그 논리가 어떻게 작용하며, 그리하여 어떻게 인식과 인식아님이 깨끗이 구별될 수 있는지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는 있지만 —논리성의 문제도 인식론에서 매우 중대한 문제라는 사실은 결코 부인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식의 또 하나

의 중요한 측면인 역사성을 무시하고서는 인식의 문제가 제대로 풀릴 것 같지 않다. 인식은 논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의 문제이기도 하다. 바로 이 점을 무시하고 인식을 순 논리적인 문제로만 취급할 것이 특히 분석인식론의 맹점이 아닌가 한다. 인식도 결국은 인간들의 인식이며 인간들이 생각해 온 방식, 인간들이 살아 온 방식을 떠나서는 인식의 본성도 밝혀지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그 과격성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여러가지 난점들에도 불구하고 위의 두 이론이, 그리고 더 크게로는 자연주의적 인식론 전체가 가지는 긍정적인 측면은 분명하다고 보아진다. 그것은 바로 인식을 논리의 문제로만 여겨 온 결과 등한시하거나 무시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인식의 역사성 문제를 인식론의 역사의 장에 재등장시켰다는 점이다. 순전히 논리적인 개념이라고 여겨져 온 합리성과 선험성의 개념도 사실은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생물학적으로 제약된 개념인지도 모른다. 신경생리학등과 같은 인간, 특히 인간의 두뇌에 관한 자연과학적 연구가 앞으로 어떤 차원으로까지 발전해 갈지 알 수 없지만 그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인식론적 논의의 방향에도 앞으로 적잖은 변화가 오리라 예상된다.

< 참고 문헌 >

Bonjour, L. *The Structure of Empirical Knowledge*, Cambridge, Havard Univ.Press, 1985.

Chuchland, P.S. *Nerophilosophy*, Cambridge, MIT Press, 1986.

Dancy, J. *Introduction to Contemporary Epistemology*, Oxford, Blackwell, 1985.

Dretske, F.I. *Knowledge and the Flow of Information*, Cambridge, MIT Press, 1982.

Fogelin, R.J. *Hume's Skepticism in the Treatise of Human Natur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85.

Giere, R, *Explaining Science: A Cognitive Approach*,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88.

Goldman, A. *Epistemology and Cognition*, Cambridge, Harvard Univ.Press, 1986.

Hookway, C. *Scepticism*, London, Routledge, 1990.

Kahneman, D., Slovic, P. and Tversky, A(eds), *Judgement under Uncertainty,* Cambridge Univ.Press, 1982.

Kitcher, P. *The Nature of Mathematical Knowledge*, Oxford, Oxford Univ.Press, 1984.

Kornblith, H.(ed) *Naturalizing Epistemology*, Cambridge, The MIT Press, 1987.

McGinn, M. *Sense and Certainty*, Oxford, Blackwell, 1989.

Moser, P.K. *Empirical Justification*, Dordrecht, D.Reidel, 1985.

_____*(ed) A Priori Knowledge*, Oxford, Oxford Univ.Press, 1987.

Rorty, R. *Philosophy and the Mirror of Nature*, Princeton, Princeton Univ.Press, 1979.

Radnitzky, G. and Bartley, III, W.W.(eds) *Evolutionary Epistemology, Rationality, and the Sociology of Knowledge*, La Salle, Open Court, 1987.

Ruse, M. *Taking Darwin Seriously : A Naturalistic Approach to Philosophy,* Oxford, Blackwell, 1986.

Shimony, A. and Nalis, D.(eds) *Naturalistic Epistemology*, Dordrecht, D.Reidel, 1987.

Stich, S. *The Fragmentation of Reason*, Cambridge, The MIT Press, 1990.